

 <b>인천광역시</b>		<b>보 도 자 료</b>		<b>재외동포청 최적지</b> <b>인천</b>	
		배포일자	2023년 5월 1일(월) 총 2매		
담당 부서	수 산 과	담 당 자	• 어업지도팀장 송병훈 ☎440-4861 • 담당자 박근영 ☎440-4863	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## 인천시, 봄철 산란기 맞아 불법어업 수륙 합동단속 실시

- 5월 한 달간, 전국 합동단속 연계해 관계기관과 협업 -

- 시·옹진군 어업지도선 8척 동시 투입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과 연계해 관계기관과 협업체제를 구축,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지도·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단속에는 인천시(수산과, 특별사법경찰과)와 군·구, 서해어업관리단, 인천해경 등이 참여하고 시 어업지도선과 옹진군 어업지도선 8척이 동시 투입된다.

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, 해경함정과 불법어업 행위 관련 정보사항을 공유해 단속효과를 높이고, 육상에서는 단속반을 편성·운영해 유통·판매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.

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▲포획금지 수산동물(어린고기) 포획·유통·판매 행위 ▲불법어구 사용 및 어구 사용량 위반 ▲조업금지구역 침범 및 허가받은 구역 이탈 불법조업 ▲무허가 및 무면허 조업 행위 ▲어

선법 위반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다.

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. 또한,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5월 합동단속 사전 예고와 홍보용 포스터 및 현수막 등 배포·게시할 계획이다.

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“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불법어업 지도·단속을 실시하고 어업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며,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해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말했다.

#### <첨부사진>



꽃게 잡이 조업 전경



연안부두 어선 정박 전경